

오늘의 주요기사

2023 4 12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의회

| | | | | | |
|----------|----|-----|------|-----------|----|
| 江原日報 | 07 | | 가 | 90% | 21 |
| 강원도민일보 | 09 | . | . | | 22 |
| 江原日報 | 10 | | | | 22 |
| 江原日報 | 08 | | | ‘ ’ | 23 |
| MBC 강원영동 | | , | | | 23 |
| 東亞日報 | 04 | | ‘ ’, | ... 가 ... | 24 |
| 강원도민일보 | 21 | [] | | | 25 |
| 강원도민일보 | 21 | [] | | ‘ ’ | 26 |
| 江原日報 | 19 | [] | ‘ ’, | | 27 |
| 江原日報 | 19 | [] | , | . | 28 |

江原日報

2023 04 11 ()

[포토뉴스] 강릉 경포 산불 대책회의



강릉 경포 산불 대책회의 및 도지사브리핑이 11일 경포119안전센터에서 김진태지사, 권성동국회의원, 김홍규강릉시장, 권혁일도의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23 04 12 ()
01

강원도민일보

강릉 경포 댁친 대형산불...올봄에도 못 피했다



강릉 대형산불

강릉 경포 일대 379ha 잿더미
최대 순간풍속 초속 30m 강풍
주택 40채·펜션 28동 등 전소
사망 1명·부상 14명 잠정 파악

국민관광지 강릉 경포 일대에 태풍급 강풍을 동반한 산불이 발생, 주택과 펜션 수십채가 전소되고 산림 170ha를 포함한 379ha의 면적이 잿더미가 되는 큰 피해가 발생했다. 산불현장에서 15명의 사상자가 나왔다. 사망자 1명, 부상자는 14명인 것으로 잠정 파악됐다.

11일 오전 8시 30분쯤 강릉시 남곡동 산 24-4야산에서 발생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골프장과 주택, 펜션 등을 덮치며 경포 바닷가까지 삼시간에 번졌다. 이날 불은 최대 순간 풍속 초속 30m의 강한 바람에 소나무가 부러지면서 전깃줄을 건드려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불은 오후 4시 30분쯤 완전됐다.

강릉지역 산불현장에서 8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0분쯤 안전동의한 펜션에서 불길을 피하지 못한 전모(88) 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부상자는 골절부상 1명과 연기흡입 후 병원 이송 13명 등 총 14명이다.

산불로 주택 40채, 펜션 28동, 호텔 3개, 차량 1대가 불에 타는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번 화마로 강원도 유형문화재인 방해정 일부와 상영정 등 문화재가 소실 피해를 입었다. 강릉경포산불현장에는 올들어 전국에서 처음으로 산불 대응 최고수위인 소방대응 3단계와 전



11일 오전 8시 30분쯤 강릉 남곡동 한 야산에 시작된 산불이 삼시간에 산 아래 주택으로 번져 집안에 있던 주민들이 황급히 대피하고 있다. 최초 발화지점 근처에 살던 주민들은 불씨가 날아와 집 근처 소나무에 불이 붙었고 손 쓸 새도 없이 뛰쳐나왔다고 했다. 황유민

강릉시산불현황 (오후 4시 30분 현재)



국소방동원령 2호가 발령됐다. 불은 다행히 이날 오후 3시 40분 전후로 강릉 지역에 국지성 폭우가 쏟아지면서 진화됐다.

경포동과 사천면 산대월리, 순포리

등지에 주민 대피령이 내려져 299세대 602명이 아이스아레나와 사천중 체육관 등지로 대피했다.

김진태 지사와 권성동 국회의원, 권혁열 도의장, 김홍규 강릉시장 등은 이날 오전 11시 40분쯤 산불현장지휘소가 마련된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산불진화를 위한 유관기관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현장 대응 활동을 벌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강릉 산불과 관련 "산림청과 소방청을 중심으로 이미 구축된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기반으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장비와 인력을 신속하게 투입해 조기 진화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홍성배 ▶관련기사 2-5-7-11면

2023 04 12 ()
02

강원도민일보

산불 원인 '전선단선' 추정... "강풍에 쓰러진 나무가 끊어"



강릉 대형산불

단락된 전선·발화 지점 일치
건조한 날씨·강풍 화재 키워
재난 수습 후 책임소재 파악
영동권 화재 주의·예방 당부

전기 불꽃에 당했다. 관광지 일대를 덮치면서 소방대용 3단계가 발령된 강릉 난곡동 산불은 '전선단선'이 원인으로 확인됐다.

산림청 중앙산불방지대책본부는 11일 오전 8시 30분쯤 강릉시 난곡동 10·3번지 일원에서 발생한 산불에 대해 "강한 바람으로 나무가 쓰러지면서 전선을 단락했고, 그 결과 단선되어 전기 불꽃을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 단락된 전선과 발화 지점이 일치하며, 지역 주민들도 비슷한 시간에 정전됐다고 이야기 한다"고 덧붙였다.



11일 강릉 난곡동에서 불이 나 8시간만에 진화됐다. 산불이 마을을 집어삼킬 듯한 기세로 타오르고 있다.

김학주 객원기자

산림청은 국립산림과학원과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관계자를 현장으로 급파해 산불이 발화지점으로 추정된 곳을 보존하고 발화원인을 조사 중이다. 산림청은 이번 원인 조사결과에 따라

원인 제공자를 산림보호법에 따른 형사적인 책임을 지도할 계획이다. 강원도 관계자는 "이번 화재의 책임 소재를 산불 진화와 이재민 수습이 완료된 뒤 화재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가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강릉 지역의 최대순간풍속은 103km/h (28.6m/s)로 확인됐다. 태풍의 경우 초속 25m 이상 33m 미만이라 면 지방까지 날아갈 수 있는 수준이다.



강릉시 난곡동 산 24-4 소재 산불이 최초로 발화된 전선주 모습. 이 전선주에서 불꽃이 튀어 산불로 번졌다. 사진제공=산림청

더불어 영동 주요지점의 실효효도는 북강릉 23%, 동해 24%, 양양 22%, 속초 22% 등으로 평균 30% 이하를 기록하는 등 대기가 매우 건조한 날씨였다. 강원기상청은 "강원영동을 중심으로 12일까지는 강풍이 이어지겠고 영동 지역에 내리는 비의 경우 양이 매우 적어 건조특보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겠다"고 당부했다. 이연제·김정호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02

시간당 47ha 쑥대밭 역대급 속도 확산

| 역대 강원도 대형 산불 현황 | |
|-------------------|--------------------------------------|
| ▶ 1996년 4월 23~25일 | 고성, 3762ha, 230억원 — 피해액 |
| ▶ 2000년 4월 7~15일 | 삼척 등 5개 지역, 2만3794ha, 360억원 |
| ▶ 2005년 4월 4~6일 | 양양, 973ha, 276억원, 낙산사 소실 |
| ▶ 2017년 5월 6~9일 | 강릉 252ha-삼척 765ha, 강릉 213억원-삼척 395억원 |
| ▶ 2019년 4월 4~6일 | 고성-강릉-인제, 2872ha, 1291억원 |
| ▶ 2022년 3월 4~8일 | 강릉-동해 4190.38ha, 355억원 |
| ▶ 2022년 3월 4~13일 | 삼척 2161.97ha, 147억원 |
| ▶ 2023년 4월 11일- | 강릉 산불 |

강릉 산불 발생 8시간 만에 완전 1시간당 축구장 66개 임야 소실 도내 다수 대형산불 3~5월 집중

강릉산불은 발생부터 완전까지 8시간 동안 축구장 530여개 면적에 달하는 379ha를 태우고 끝이났다.

1시간당 47ha를 쑥대밭으로 만들며 불이 확산된 것이다. 이번 산불의 확산 속도는 역대급 대형 산불을 뛰어넘었다. 2005년 4월 발생한 양양산불은 32시간 동안 973ha를 불바다로 만들어 시간당 약 30ha 수준이었다.

지난 2022년 3월 강릉과 동해, 삼척

산불은 9일간 4190.38ha의 산림을 불태웠다. 이는 시간당 19.3ha의 확산 속도다.

이날 산불은 11일 오후 2시30분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이번 산불은 강릉을 비롯한 동해안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남길 뻔 했다.

특히 초속 30m가 넘는 바람으로 초대형 진화헬기까지 발이 묶여 있던 상황이였다. 이로 인해 소방차에 의지한 불이 확산되는 불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었다.

강원도소방본부 관계자는 "정말 역대급 대형화재가 발생하는 줄알고 잔뜩 긴장했다"며 "재발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끝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않

고있다"고 했다.

역대급 확산 속도의 원인은 양간지풍이다. 강원도산불방지센터가 집계한 도내 대형산불을 분석한 결과 1996년부터 2022년까지 발생한 총 32건의 대형산불 중 2건을 제외한 모든 산불이 3~5월 사이 양간지풍이 기승을 부리는 기간 동안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산불은 산림피해면적이 100ha 이상으로 확산된 산불 또는 24시간 이상 지속된 산불을 말한다.

피해가 가장 컸던 도내 대형산불은 2000년 4월 7일 발생한 동해안산불이다. 해당 산불은 강릉과 동해, 삼척, 고성 등 도내 4개 시,군 산림 2만3794ha를 잿더미로 만들었다. 불은 2000년 4월 7일 발생해 4월 15일 진화되기까지 무려 191시간이나 이어졌다.

당시 최대 풍속 역시 23.7m로 거센고 피해가 이어지자 화재 이재민만 299세대 850명이 발생하는 등 큰 피해를 입혔다. 김정호·신재훈

2023 04 12 ()
05

강원도민일보

“평생 번 돈 투자한 펜션 잿더미... 어떻게 살아야할지 캄캄”

강릉 대형산불

경포 펜션·폴빌라 운영 최정우씨
12개 객실·수영장·집까지 없어
여름까지 예약 마감, 손실 막대



11일 발생한 화재로 모두 불에 탄 최정우씨 펜션과 폴빌라. 사진제공=최정우씨

“평생을 번 돈 투자해 지은 펜션인데... 당장 잘 곳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할지 막막합니다.”
강릉 경포 일원을 속대밭으로 만든 산불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은 허망함을 감추지 못했다. 경포에서 펜션과 폴빌라를 운영하는 최정우(54)씨는 이번 산불로 집과 펜

션, 폴빌라를 모두 잃었다. 8여 년 전, 젊은 시절 모은 돈과 일부 대출을 받아 남은 생을 걸고 만든 곳이었다. 최정우씨는 본지와외 통화에서 “불

이난곡동에서 시작됐는데 집과 펜션, 폴빌라가 있는 저동과는 4km 정도 떨어져 있었다”며 “거리가 좀 있었는데 바람 때문에 순식간에 불길이 덮쳐 속수무책으로 몸만 빠져나왔다”고 했다.
먼받치에서 집과 펜션, 폴빌라가 들어가는 것을 보고 있으니 그저 기가 막힐 뿐이었다는 최정우씨. 8여 년을 운영한 펜션과 폴빌라는 최씨의 전부였다. 경포 일원에서 나름 인기도 많아 다섯손가락 안에 꼽힐 정도다. 하지만 이번 화재로 펜션 객실 8개, 폴빌라 4개 등 모두 12개 객실과 수영장, 집까지 모두 잃었다.
최씨 뿐만 아니라 저동 일원 펜션 30여 채가 불에 탔다. 소나무가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솔방울이 바람을 타고 날아가 피해를 키웠다.
최정우씨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다”는 말을 반복했다. 이미 여름에 약까지 대부분 마감된 터라 영업 손실도 막대하다. 최정우씨는 “폴빌라의 경우 기업에서 임대하는 방식이어서 단 순히 계산해도 3개월 운영 시 최소 3억 원 이상은 될 것”이라며 “앞으로 언제 영업을 재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펜션이 곧 집이었던 그는 당장 거처할 곳부터 마련해야 할 처지다.
더욱이 최정우씨는 은행이 금융상품을 옮기는 과정에서 화재보험이 누락된 사실을 발견, 더욱 막막한 상황이다. 최정우씨는 “처음 펜션과 폴빌라를

운영할 때 화재보험에 가입했는데 은행에서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한다면 상품을 바꾸는 과정에서 화재보험을 누락한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됐다”며 “은행에 강력하게 항의를 하고 오는 길인데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암담하다”고 했다.
빠대만 남은 건물을 바라보는 심정을 묻는 질문에 그는 한동안 답하지 못했다. 최정우씨는 “이걸로 먹고 사는 데 그저 알아감할 뿐”이라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다고 해도 어느 정도까지 보상이 될지도 모르겠고, 정말 성실하게 열심히, 잘 해왔는데 어떻게 살아야 할지...”라며 말 끝을 흐렸다.
오세현 tpugs@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05

“이 작은 텐트가 내게 남은 유일한 보금자리”

이재민 557명 대피·인원 추가 전망
강푹땃 불길 순식간 확산 피해 커
“더 이상 돌아갈 곳 없어” 주민 눈물

강릉에서 발생한 산불의 주불이 잡혔지만 역대급 강풍을 타고 민가로 번져 돌아갈 곳이 없어진 주민들은 막막해 기만하다.
11일 잿은 강릉아이스아레나 대피소. 이번 산불로 주택과 펜션 71채가 소실되거나 피해를 입는 등 주민피해가 이어지면서 대피소에는 528명 가량의 이재민들이 돛자리와 재난 구호 쉼터에 의지한 채 늘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었다. 사천중학교 대피소에는 이재민 30여 명이 몸을 피하고 있는 상태다.
현장은 집이 완전히 불에 타거나 갑작스러운 산불로 아무것도 챙기지 못한 시민들이 대부분이었다. 이재민들의 심리회복을 위한 강원도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도 한켠에 마련됐지만 이재민들은 당시의 화마를 목격한 마음을 달랠 수 없었다.
안식처를 잃은 주민들은 허탈할 따

름이다. 강릉안현동에 거주하는 김홍기(59)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힘겹게 살아가던 삶에서 안식을 주던 월세방이 불에 타 돌아갈 곳을 잃었다. 김씨는 두 다리가 불편해 의족과 휠체어로 이동해 대피도 쉽지 않았다. 밤이 돼 주던 전동 휠체어마저도 이번 산불로 인해 집이 타면서 같이 잿더미가 돼 버렸다. 김씨는 “부모님도 처자식도 없는 상황에서 그나마 옆집의 외국인 노동자가 구해줘 간신히 살았다”며 “더 이상 돌아갈 곳도 없는 상황에서 이 텐트 말고는 나를 지켜줄 보금자리가 없다”고 했다.

발화지점인 강릉시난곡동에 거주하는 이선도(84·여)씨. 난곡동 노인회관 근처에서 혼자 거주하는 그는 이리 저리 강푹을 타고 치솟는 불길의 기억이 아직 생생하다. 이미 인근 주민들은 모두 대피했지만 이씨는 홀로 사는 탓에 이동수단이 없어 발만 동동 굴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눈시울이 붉어졌다. 불은 순식간에 자택 주변으로 번져 연기가 자욱해 숨도 쉬기 어려웠던 그때 다행히 이재민을 대피시키던 공



11일 강릉 아이스아레나에 마련된 주민 대피소. 수많은 이재민들이 커져가는 산불로 인해 불안한 마음으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었다.

무원들의 차에 탑승해 대피소로 이동할 수 있었다. 이씨는 “간신히 차에 타 이동하는 길에 이웃들이 살던 집이 타고 있는 모습을 봤다”며 “50년 이상 살아온 집이 어떻게 됐는지 몰라 걱정”이라고 했다.
대피소에 가장 처음 도착했다는 전우집(82)씨는 “불길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키우던 강아지를 풀어주지도 못하고 도망쳤다”며 “바로 옆에 살던 세집이 불에 타버려 우리집도 지금 멀쩡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남아있는 상태로 이재민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대피소에

남아있는 상태로 이재민 접수가 이어지고 있어 최종 인원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재훈



강릉지역에 강풍경보와 건조경보가 내려진 11일 강릉시 난곡동에서 오전 8시 30분쯤 불이나 주택과 마을을 덮치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김학주 객원기자

화마가 할퀴고 그을음에 포위... 삶의 터전 빼앗긴 **잔인한 봄**

강릉의 일상이 멈췄다. 600여명에 달하는 주민들이 삶의 터전을 뒤로한 채 몸부터 피해야 했다. 학교는 수업을 쉬기로 했고, 등교했던 학생들은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11일 오전 8시30분쯤 발생한 강릉산불은 8시간만인 오후 4시30분쯤 에서야 꺼졌다. 강릉시민 1명이 숨졌고 379ha가 피해를 입었다. 2023년 4월 11일 강릉의 모습을 카메라에 담았다.



강릉 산불로 경포대초 학생과 교직원들이 대피했다. 불길과 연기가 학교 쪽을 향하고 있다.

사진:독자제공



난곡동에서 발생한 산불이 안현동에 위치한 라카이 샌드파인으로 옮겨붙을 듯 위태로워 보인다.

사진:독자제공



산불이 건조한 날씨 속 강풍을 타고 경포해변 인근 솔밭까지 번지자 강릉시 공무원들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김정호



산불이 경포대 일대를 덮친 11일 민가를 태우고 있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강릉시 관계자가 애쓰고 있다.

황유민



11일 오전 8시30분쯤 강릉시 난곡동의 한 야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릉을 타고 삼시간에 경포동과 사천면 일대까지 번지고 있다.

황유민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11

“경포 일대 사수하라” 관광지 주민 망연자실

주택 등 72채 전소, 펜션 1명 사망
초당동 등 주택밀집지역 피해 없어

울창한 송림과 호수 등 빼어난 자연 경관을 자랑하는 강릉관광 1번지 경포 일대에 초대형 화마가 휩쓸고 간 데다 산불현장에서 사망자까지 발생해 시민들이 큰 충격에 빠졌다.

11일 강릉시 남곡동 골프장 인근 (산 24-4)에서 발생한 산불은 성인

남성이 날아갈 정도의 강한 돌개바람이 불면서 사방으로 불꽃이 튀어 70~80년생 아름들이 소나무들을 순식간에 태우며 번졌다. 얇은 산 골짜기에 주택과 펜션들이 빼곡히 들어섰으나 이번 산불로 주택과 펜션, 호텔, 문화재 등 72채가 전소되는 피해가 발생

했다. 검은 연기는 경포대에서 경포 해변 중앙광장 방면으로 쓸고 내려가 관광지 도로변 일대가 숲 검댕이로 변했다. 불길은 강릉 경포 인공폭포가 있는 북쪽방면으로도 번져 인근 펜션과 커피숍, 공중화장실 등이 불에 타 주민들이 망연자실했다.

강릉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현동의 한 펜션에서 불길을 피하지 못한 전모(88)씨가 숨진채 발견됐다. 이와 관련 김진태 도시자는 “인명 피해 발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송구스럽

다”고 밝혔다.

강풍을 동반한 불길은 관광지 일대를 태웠으나 다행히 경포호를 건너지 못해 초당동 등 주택 밀집 지역으로는 번지지 않아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불은 시의 주요 관광지 중 하나인 경포대 앞 데크까지 불길이 번지면서 관광지 주변이 초토화됐다.

불길은 다행히 오후 3시 40분쯤 국지성 호우 3mm 가량이 쏟아지면서 주불이 잡혀 산불발생 8시간에 완진됐다.

홍성배 sbhong@kado.net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01

특별재난지역 선포 촉구

피해 규모 요건 충분 당위성 강조

강풍속에 발생한 강릉 산불로 주택·펜션 등이 막대한 피해를 입은 가운데 강릉 산불 피해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진태 도지사와 권성동(강릉)국회의원은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과 관련,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위성을 밝히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당위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하면서 “마지막까지 불을 다 진압하고, 재산 피해를 더 확실하게 조사해서 특별재난지

역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피해 규모만 보서는 선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위해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과 통화했다. 도지사와 강릉시장과 협력, 반드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약속했다. 박지은·이세훈 ▶관련기사 4면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04

김진태 지사·권성동 의원, 강릉 긴급 출동 “특별재난지역 건의”

산불 진화 지휘권 도지사 이양 인력 총동원 피해상황 최소화

강릉 산불이 ‘8시간 사투’ 끝에 주불을 잡은 가운데 김진태 도지사를 비롯해 강릉 지역구 권성동 국회의원, 김홍규 강릉시장, 권혁열 도의장 등은 산불 발생과 동시에 현장으로 긴급히 이동, 현장 상황을 챙겼다.

특히 김 지사와 권 의원은 강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 피해상황 최소화에 총력전을 벌였다.

산불 3단계 발령으로 진화 지휘권이 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김진태 도지사는 11일 오전 춘천에서 강릉으로 긴급히 이동하며 “강풍으로 인해 헬기가 뜰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모든 가용 자원을 동원해 총력 대응하고, 민가 소실 피해를 최소화하라”며 “진화 과정에서 대원들과 주민들의 인명사고가 없도록 안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김 지사는 강릉 산불 현장 지휘소가 차려진 녹색도시체험센터에서 권 의



오전 11시 50분쯤 강릉 산불 현장 지휘소가 차려진 녹색도시체험센터에 도착한 권성동 의원과 김진태 지사가 김홍규 강릉시장으로부터 현장 보고를 받은 뒤 산불현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원, 김 시장 등과 함께 산불 상황을 점검하며 현장 대응에 나섰다.

김 지사는 “마지막까지 불을 다 진압하고, 재산 피해를 더 확실하게 조사해서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되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강릉) 의원은 이날 강릉 난곡동, 운정동 산불현장을 찾아 피해현황을 점검하고 진화대원 및 봉사자들을 격려했다.

권 의원은 “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오전에 행정안전부 관계자와 통화했고, 피해 규모로 보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며 “지사, 시장과 협조해서 강릉이 특별재난지역으로 반드시 선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남성현 산림청장은 “마지막까지 잔불 정리와 뒷불 감시를 철저히 해달라”고 했다. 박지은·이세훈

江原日報

2023 04 12 ()
07

“강원외고 특목고 지정 취소 절대 안 돼”

이기찬 도의회부의장 삭발 기자회견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강원 외고의 특목고 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삭발’ 기자회견을 벌였다.

이 부의장은 11일 강원도교육청 앞마당에서 “강원 글로벌교육을 말살(抹殺)하는 신경호는 사퇴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하고 “특목고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과 1인 파켓시위, 삭발과 단식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론수렴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적으로 강원외고 지정 취소를 강행했다. 경쟁력 없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되면 각종 보조금과 출연금이 사라지는 대표적 ‘먹튀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양구지역 내 학생들의 강원외고 쏠림 현상으로 기존 일반고(양구고, 양구여고)와의 경쟁이 심화되는 것은 볼 보듯 뻔한 일”이라고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삭발을 했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11일 강원도 교육청 앞마당에서 신경호 교육감 사퇴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하고 있다. 김오미기자

으며 이날부터 교육청 앞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박세민 강원도교육청 대변인은 “사립학교인 강원외고의 특목고 지위 포기 과정에 강원도교육청이 관여할 어떠한 권한도 없다”며 “충분히 설명드렸음에도 교육감 사퇴까지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당혹스럽다”고 했다. 원선영·김오미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06

이기찬 도의회 부의장 강원외고 존치 촉구 삭발식

이기찬강원도의회 부의장이 삭발식을 갖고 강원외고 존치를 촉구했다. 강원외고는 최근 교육부의 특목고 지정 취소를 받아 농어촌자율학교 전환을 추진 중이다.

이기찬 부의장은 11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강원 글로벌교육 말살하는 신경호는 사퇴하라'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삭발식을 했다. 성명에서 이 부의장은 "강원외고는 양구뿐만 아니라 강원도민의 소중한 자산임에도 강원외고 학교법인인 양록학원과 신경호 교육감은 여론수렴 절차도 제대로 하지 않고 졸속으로 '강원외고 지정 취소'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광역단위로 신입생을 모집하는 농어촌자율학교들은 어떠한 경쟁력도 갖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신경호 교육감의 사과와 학교 관계자에 대한 감사와 수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세민 도교육청 대변인은 "사립학교인 강원외고의 특목고 지



이기찬 강원도의회 부의장이 11일 오전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강원외고 존치를 촉구하며 삭발식을 가졌다.

위 포기 과정에 도교육청이 관여할 권한은 없다"며 "이러한 상황에도 교육감 사퇴를 공식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당혹스럽다"라고 밝혔다. 정민엽

2023 04 11 ()

KBS 춘천

이기찬 강원도의원, 강원외고 일반고 전환 항의 삭발



이기찬 강원도의회원이 오늘(11일) 강원도교육청 앞에서 강원외국어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에 항의하며 삭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강원외고의 일반고 전환 절차에 지역 주민의 의견 수렴이 빠져 있다며, 신경호 교육감은 강원외고 일반고 전환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번 주 안에 교육부와 강원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특목고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을 춘천지방법원에 제기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영준

2023 04 11 ()

G1방송

이기찬 도의원, 강원외고 농어촌 자율학교 전환 반대

최경식 기자 [victory@g1tv.co.kr]



양구 강원외고가 특목고 지위를 포기하고 농어촌 자율학교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이기찬 도의원이 오늘(11일) 도 교육청 앞에서 식발식을 갖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기찬 도의원은 성명을 발표하고 "경쟁력 없는 농어촌 자율학교로 전환되면 양구지역 내 학생들의 자율학교 쏠림 현상으로 기존 일반고 두 곳 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특목고 지정 취소 가처분 신청과 무기한 단식 농성, 양구 주민 서명 운동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 ,

江原日報

[포토뉴스] 강원도의회, 강원특별법 개정안 조속 통과 촉구



강원도의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의원 49명 전원은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신세희기자



강원도의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의원 49명 전원은 규제완화와 권한이양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신세희기자

강원도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는 ‘국가 의무’ 특별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도의회, 국회 통과 촉구 건의
최초 주민주도 자치분권 강조
4대 규제해소 지원 등 요청

강원도의회 의원들이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은 법률로 명시된 국가적 의무 사항”이며 “실질적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라며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원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는 11일 318회 임시회 1차 본회의 종료뒤,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건의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결의문 대표낭독에 나선 김집수 강



강원도의회(의장 권혁열)는 11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강원특별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건의안을 발표했다.

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과 이승진 부위원장은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은 여당과 야당이 그 필요성을 인식

항”이라며 “강원특별자치도는 정부주도가 아닌, 지역주민이 제안하고 호소해서 추진하는 가장 실질적인 자치분권의 최초 사례”라고 했다.

이어 “진정한 지역자치와 균형발전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현 정부의 정책 기조의 관점에서 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은 윤석열 정부의 성공여부를 가늠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 법률안은 그동안 강원도민들이 큰 희생과 고통을 감내해온 환경, 산림, 국방, 농업의 4대 규제 해소 핵심”이라며 “제주도가 2006년 1차 법률안 전부개정시 1062건의 권한 이양을 했던 것과 비교해 보면 핵심규

제완화와 출범에 필요한 조직의 설치 운영 등 기본적으로 시급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4대 핵심규제 해소를 위한 법령안에 난색을 표하고, 더 나아가 반대하는 기류가 지감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입장을 표명할 것을 300만 강원도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강원도의회는 강원도민일보가 진행하고 있는 강원특별법 전면개정 촉구 및 성공출범 메시지에 동참하기로 하는 등 특별법 조기 관철을 위한 범국민적 열기 결집에 힘을 보태기로 했다.
이철화·김덕형

2023 04 12 ()
06

江原日報



도의회 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신속 통과 촉구 강원도의회는 11일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의 신속한 통과를 촉구하며 건의문을 발표했다. 도의원 49명 전원은 규제 완화와 권한 이양을 요구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신세희기자

2023 04 11 ()



강원도의회 “자치도법 조속 통과...태권도연맹 유치 촉구”



강원도의회가 오늘(11일) 도의회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습니다.

도의회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인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위해서는 이번 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도의회는 또,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춘천 유치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송승룡

춘천MBC

2023 04 11 ()

도의회, 강원특별법 개정안 원안 통과 강력 촉구

강원도의의회가 강원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원안 통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표했습니다.

도의회는 강원특별자치도 추진은
여당과 야당이 함께 제시한 약속이며
법률로 명시된 국가적
의무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강원도에서 당초 발굴한
500건의 특례 가운데, 137건으로 축소된
법률 개정안이라며 특별한 희생을
이어온 도민들을 위해 개정안이
원안 통과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승호
bsh@chmbc.co.kr

江原日報

2023 04 11 ()

‘고강도 긴축’에 강원도 통합재정수지 15년 만에 404억원 흑자

김진태 지사 6월10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행사 윤석열 대통령 참석 요청



강원도의회(의장:권혁열)는 11일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강원도의회

강원도 통합재정수지가 15년 만에 40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11일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릉 산불 현장 지휘에 들어간 김진태 지사를 대신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서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쓸 땐 쓰고 아낄 땐 아낀다’는 기초 아래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 중으로 1조원에 달했던 채무를 30% 가까이 갚았다”며 “도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 이후 최초로 40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2.6% 오른 29.4%를 기록해 30% 대 진입을 눈 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행사 참석도 추진된다.

김 부지사는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6월10일 강원 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강원도가 요구하는 것은 자유’라고 본질을 짚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가 보고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8조533억원이다. 올해 당초 예산 7조5,232억원에서 5,32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도는 이번 추경 예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민생 안정, 미래산업 투자 등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임시회를 이어가며 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0개 조례안, 2개 동의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06

“도 어업지도선 건조 시 사업비 30% 특교세로 충당해야”

도의회 임시회 개최 5분 발언 강조
알펜시아 매각대금 오류의혹 제기도

강원도의의회 제318회 임시회가 11일 개최한 가운데 강원도 어업지도선의 대체 및 신규 건조시 국가예산 투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강정호(속초)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나서 “강원도 어업지도선은 동해 조업한계선 위쪽에 위치한 저도 및 북방 어장에서 어선 피랍 예방 등 국가사무를 대행하고 있음에도, 어업지도선 건조시 국가예산을 전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강원201호 대체선인 새 어업지도선 건조에 필요한 총 사업비 39억9000만원의 30%인 12억원을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로 충당해야 한다”고 했다.

또, “북방어장 및 울릉도 등 원거리 수역에서 임무수행을 위한 150t급 어업지도선 신규 건조에 필요한 사업비 130억원의 50%인 65억원에 대해서도 국비보조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석균(원주) 의원은 “알펜시아리



강정호 하석균 김기철 류인출 엄기호

조트 최종 자산 매각금액이 6717억원인데, 부동산 실거래가액 6621억여원과 95억여원 차이가 난다”며 매각대금 오류의혹의 해소를 요청했다. 또, 양수도 계약서에 ‘계약금을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는 조항을 뒤 양수인에게 유리한 약정조항을 뒀다고 지적했다.

김기철(정선) 의원은 “급속한 기후 변화 시대에 다양한 식생대를 갖는 강원도는 생물다양성을 유지해 생명연구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며 2025년에 착공하는 강원권 국립생물자원관을 센터급으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류인출(원주) 의원은 폐지를 수거하는 노인의 하루 수익이 1만428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폐지의 적정

안했다.

엄기호(철원) 의원은 국도 56호 철원~화천 구간을 2차선 유지 상태로 개선하는 등 계획이 미비한 점을 지적하며 “춘천~철원 연결도로가 강원도 소외의 상징이 아닌, 강원특별자치도민의 소통의 상징이 되길 기원한다”고 개선을 촉구했다.

앞서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는 강원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대독에 나서 “1조원에 달했던 강원도 채무를 30% 가까이 갚았다”며 “매년 적자를 기록했던 강원도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 이후 최초로 40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강원도 재정자립도는 작년보다 2.6% 오른 29.4%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설화

江原日報

2023 04 12 ()
04

현장 급히 찾은 도의원 상황 점검·이재민 위로

강원도의원들이 11일 강릉 산불 현장을 급히 찾아 진화상황을 점검하고 이재민을 위로했다. 권혁열 도의장과 박호균, 심오섭, 최승순 등 강릉지역 도의원들은 이날 강릉 산불 발생 소식 직후 현장으로 이동했다. 권 도의장 등은 강릉녹색도시체험센터 내 꾸러진 산불상황본부를 찾았고 이재민이 모인 강릉 아래나 수영장, 시천중을 방문해 주민들을 만났다.

강릉 출신 김용래 도의원과 문관현(태백) 도의원, 박대현(화천) 도의원은 도소방본부 상황실을 찾아 대민 피해와 진화 상황을 살폈다. 이날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기홍 부의장과 도의원들도 강릉 산불의 빠른 진화와 피해 최소화를 당부했다.

국민의힘은 “추가적인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화재 예방 활동에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불 대응에 나서주길 바라고 민주당도 무엇이든 돕겠다”고 강조했다. 정윤희·이하늘기자

江原日報

2023 04 12 ()
06

“알펜시아 계약 대금·실거래가 격차 178억원”

하석균 도의원 자유발언서 제기
강개공 “비품 등기 빠져” 해명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과정에서 작성된 계약서상의 대금과 부동산 실거래가가 178억여원 차이가 난다는 주장이 강원도의의회에서 제기됐다.

하석균(원주) 도의원은 11일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알펜시아리조트의 거래가액을 부동산 등기부 등본으로 확인한 결과 6,621억여원”이라며 “2021년 강원도개발공사(이하 강개공)와 KH그룹 간 작성된 양수도 계약서상의 대금 6,800억여원과 178억여원의 차이가 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하 의원은 “강개공은 ‘계약금은 민법상 해약금으로 해석되지 않는다’는 KH 측에 유리한 약정을 뒀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강개공은 “양도 자산 중 토지와 건물 등은 소유권 이전 등기

가 필요하지만 비품 등은 필요치 않아 편차가 발생했다”며 “KH의 귀책으로 계약이 해제되면 계약금과 이자가 귀속되는 조항과 손해배상 청구 조항이 있다”고 해명했다.

강정호(속초) 도의원은 “접경수역에서 어선 안전 관리 등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도에 정부가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 비용을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엄기호(철원) 도의원은 “철원군민도 타 지역 도민들과 교류와 소통할 수 있도록 도로 여건을 제공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류인출(원주) 도의원은 “폐지의 적정 가격을 보장하는 보조금 지원 정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김기철(정선) 도의원은 “생명연구 자원의 확보와 관리·활용을 통한 생명산업 생태계 조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윤희기자 jyh89@kwnews.co.kr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정신 계승의 밑거름 될 것”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기념식 및 강원 광복기념관 착공식이 임시정부 수립일인 11일 춘천 신복읍 천전리 강원도 항일애국선열 추모탑에서 열렸다.

광복회 강원도지부가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신경호 도교육감, 육동한 춘천시장, 정재웅 도의회 사회문화위원장, 김진호 춘천시시장, 허인구 G1방송 사장, 이희정 강원서부보훈지청장, 김진이 강원동부보훈지청장 등 기관·단체장과 이종호 광복회 도지부장을 비롯한 광복회원 및 유족 170여명이 참석했다.

김명선 부지사는 “한밤에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임시정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노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 행사·강원광복기념관 착공식



◇제104주년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및 강원 광복기념관 건립 착공식이 11일 춘천 천전리 강원도 항일애국선열 추모탑에서 이종호 강원도광복회장, 허영·노용호 국회의원, 신경호 도교육감, 김명선 도 행정부지사, 육동한 춘천시장, 엄찬호 의암학회장을 비롯한 보훈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김남덕기자

력이 절실하며 도에서 항일애국선열의 정신을 기리고 선양하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영 국회의원은 “국회 예결위원일 때 광복기념관 설계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 더 신경 써 광복

기념관이 독립과 평화의 상징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노용호 국회의원은 “애국선열들이 국가를 위해 피를 흘린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강원도 광복기념관이 잘 건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종호 광복회 도지부장은 “임시정부 수립 104주년이라는 뜻깊은 날에 강원 광복기념관 착공식이라는 또 다른 경사를 맞이했다”며 “독립을 위해 헌신한 임시정부 요원을 비롯한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봉사에 감사하며 대한민국과 강원도의 자랑스러운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는 밑거름이 되겠다”고 말했다.

강원도는 30억원을 들여 항일애국선열 추모탑 인근에 강원 광복기념관을 건립할 예정이다.

오현우기자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16



철원군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활동 서약식이 11일 철원군자원봉사센터에서 열렸다.

철원군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활동' 서약

사회지도층 참여 나눔 정착 다짐

철원군자원봉사센터(센터장 진의태)는 11일 자원봉사센터 교육실에서 철원지역 사회지도층의 참여와 나눔의 문화 정착을 위한 '2023철원군 노블레스 오블리주 봉사활동' 서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서약식에는 박기준 철원군의장을 비롯해 강세용·장용·김광성·

이다은 의원과 김정수 도의원, 정재덕 철원소방서장, 정도영 농협 철원군지부장, 채흥기 한국농어촌공사 철원지사장, 임대수 철원군체육회장, 김현모 철원문화원장, 라금배 사회복지협의회장 등 지역내 기관장들이 참여해 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또한 이날 서약식 참가자들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탄소중립실천활동의 일환으로 밀랍랩 만들기 활동을 펼쳤다. 철원지역 노블레스 오블리주 활동은 매년 서약식을 시작으로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서약식을 통해 사회지도층 인사들이 숭선수범해 소외계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재용

2023 04 12 ()
04

江原日報

학교 코앞까지 위협... 25개교 휴업·단축수업

경포대초교 담장 불에 그을려 이재민 대피소로 체육관 활용

11일 발생한 강릉 산불과 영동지역 강풍으로 강원지역 학교들이 휴업 및 단축수업을 실시했다.

강릉 경포대초교는 이날 오전 10시께 학생 71명과 병설유치원생 11명을 모두 귀가시켰다. 산불이 강풍을 타고 크게 번지면서 학교까지 위협했기 때문이다. 학교 측은 강릉교육지원청 에듀버스를 이용해 화재 발생지와 거리가 먼 초당초교로 대피시키려 했으나 주차장에서 대기하던 중 학부모들이 학생들을 데리러 오면서 모두 귀가 조치했다. 교직원

21명은 초당초교로 대피했고, 일부 교사는 학교에 남아 산불 상황을 감시하면서 대책을 논의했다. 학교와 학생 피해는 없다. 다만 학교 담장과 주변 나무가 불에 그을렸다.

강릉 사천중은 단축수업을 했다. 산불로 도로 통제가 이뤄지면서 시내에 사는 학생들의 귀가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현재 이 학교 체육관은 이재민 대피소로 활용되고 있다.

나머지 강릉지역 중·고교 화재 지역 인근 거주 학생들은 희망 학생에 한해 인정 조퇴로 귀가 조치했다. 강릉지역 단축수업 학교는 경포대초, 신영초, 연곡초, 사천중, 동명중, 주문진중, 강릉중앙고, 강릉문성고, 강릉명륜고 등 9개 학교다.

속초와 삼척, 고성에서도 강풍으로 인한 휴업과 단축수업이 이뤄졌다. 11일 하루 동안 강풍으로 휴업한 학교는 교동초, 영랑초, 중앙초, 청대초, 청호초, 속초중 등 속초지역 6개 학교, 단축수업을 한 학교는 속초현북초, 소야초, 설운중, 삼척 한국에너지마이스터고, 고성 동광중 등 10개 학교다.

신경호 교육감은 피해 지역과 학교를 직접 방문, 강릉교육지원청에서 대책 회의를 주재했다.

신 교육감은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생 피해가 없도록 교육지원청과 학교의 역량을 다하고, 선제적 조치와 적극적인 학부모 안내로 학교 현장과 학생 가정에 혼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강원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 춘천 스키컨벤션웨딩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강원도교육청-강원도의회 2023년도 협력체계 구축 교류회’를 취소했다. 원선영기자 haru@

江原日報

도 통합재정수지 15년 만에 404억원 흑자

고강도 재정혁신 추진 주효
재정자립도 29.4% 기록

강원도 통합재정수지가 15년 만에 40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김명선 행정부지사는 11일 강원도의회 제31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릉 산불 현장 지휘에 들어간 김진태 지사를 대신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지사는 “민선 8기 도정은 ‘쓸 때 쓰고 아낄 때 아낀다’는 기조 아래 고강도 재정혁신을 추진 중으로 1조

원에 달했던 채무를 30% 가까이 갚았다”며 “도 통합재정수지가 2008년 이후 최초로 404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는 지난해보다 2.6% 오른 29.4%를 기록해 30% 대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행사 참석도 추진된다.

김 부지사는 “지난 6일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께 6월 10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행사에 참석할 것을 요청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께서는 ‘강원도가 요구

하는 것은 자유’라고 본질을 짚으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도가 보고한 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8조533억원이다. 올해 당초 예산 7조5,232억원에서 5,321억원 증액을 요청했다. 도는 이번 추경예산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준비, 민생 안정, 미래산업 투자 등 3가지 분야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오는 25일까지 임시회를 이어가며 도의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10개 조례안, 2개 동의안,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처리한다. 정윤호기자

江原日報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참여율 90% 육박

510개교 중 457개교 신청 ... 전년 대비 30%P 증가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에 강원지역 학교 10곳 중 9곳이 참여한다. 서열화 우려를 둘러싼 찬반 공방에도 대다수의 학교가 진단평가 참여를 신청하면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의 학력 향상 정책도 일단 탄력을 받게 됐다.

강원도교육청은 11일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 대상 학교 510개교 중 89.61%인 457개교가 평가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평가가 처음 실시된 지난해 60.6%보다 30%포인트 가까이 증가한 셈이다.

특히 초등학교는 전체 350개 학교 가운데 319개 학교가 참여, 91.14%의 참여율을 보였다. 중학교는 160개 학교 중 138개 학교가 평가에 참여해 86.25%를 기록했다. 지난해 참여율은 초등학교 65.53%, 중학교

50%였다.

학생 수로 따져보면 초등학생은 전체 3만6,667명 가운데 77.24%(2만8,322명), 중학생은 3만7,135명 가운데 79.3%(2만9,447명)가 신청했다. 전체 학생 참여율은 78.28%다.

학교 참여율보다 학생 참여율이 다소 낮은 이유는 전교생이 평가에 응하지 않고 일부 학생만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다. 지역별 신청률은 공개하지 않았다.

올해 강원학생성장진단평가는 7월5일(초등), 7월12일(중학교) 실시된다. 지난해에는 자유학기제로 중학교 1학년은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는 이들과 참여한다. 문제 형식도 일선 학교 교사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주관식·서술형을 빼고 객관

식으로만 출제할 예정이다. 7월 평가에서 기준치에 미도달한 학생은 올 12월에 강원학생성장향상도평가를 별도로 실시, 후속 조치 등에 대한 효과를 따져볼 계획이다.

평가 결과는 학생 개인에게만 통지한다. 지난해와 동일한 수준에서 평가 결과를 알리고, 보완해야 할 사안을 좀 더 세밀하게 안내하기로 했다. 백분위는 공개하지 않는다.

앞서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백분위 석차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서열화 우려를 고려해 과목별 분포 그래프상에 점을 찍어 자신의 위치만 알려주는 방식으로 선회했다.

심영택 강원도교육청 더 나은 학력 지원관은 “현장의 관심과 기대가 큰 만큼 촘촘한 진단을 통해 학부모와 교사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원선영기자 haru@

2023 04 12 ()
09

강원도민일보

커피 육성·공공미술·관광협 추경서 부활하나

시의회 복지위 1회 추경안 심의 당초예산 삭감 일부사업 재상정 심의 통과 가능성 관심 쏠려

속보=춘천시 올 당초예산 심의에서 삭감된 예산이 첫 추경 예산안에 재상정(본지 3월 31일자 11면), 시의회 심의를 통과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이희자)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고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의했다. 이번 추

경안 심의는 지난해 말 당초예산 심의 때 삭감된 일부사업이 다시 포함되면서 통과여부가 쟁점이 됐다.

춘천시는 ‘춘천 커피 콘텐츠 육성’ 예산 4억원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했다. 해당 사업은 당초 예산 심의에서 2억 8000만원으로 상정, 전액이 삭감됐으나 올 추경에 1억 2000만원을 증액했다. 시 관계자는 “당초예산 당시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받지 못하면 3억원 이상을 올릴 수 없었으나 다시 심사를 신청해 4억원으로 편성하게 됐다. (커피축제가 이뤄지는) 강릉시를 따라잡아야겠다는 의욕에서 예산을 올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

승민 시의원은 “춘천이 에티오피아 원두를 들여온 지 60년이 됐다고 하는데 시간이 흐르는 동안 커피 도시를 선점하지 못한 것이 안타깝다”며 “춘천이 닭갈비·막국수 축제로 유명한데 이것이 커피축제로 인해 묻힐 수 있다는 걱정도 생긴다”고 했다. 이선영 시의원도 “향후 강원도 재심사 과정에서 커피 콘텐츠 사업을 왜 하느냐에 대한 타당성을 갖춰 설득력 있는 자료 준비에 철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5억원이 전액 삭감된 춘천 조각공공미술 심포지엄 예산도 추경예산안에 다시 반영됐다. 정경옥 시의원은

“예산안을 보면 당황스럽다. 당초 예산과 이번 추경에 책자자료를 비교해 봤더니 토씨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다시 올라왔다”고 지적, 계획안 서면 자료를 요구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는 권진규 작가 50주기를 추모하는 차원에서 테라코타나 도자 등을 소재로 해 시민들도 함께 참여하는 데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라고 밝혔다.

당초예산안 심의에서 1억 9000만원이 전액 삭감된 후 1억 2600만원으로 재상정된 춘천시 관광협의회 운영 지원비에 대해서도 사단법인에 대해 100% 지원해야 할 의무가 없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상은

江原日報

2023 04 12 ()
10

춘천시 생애주기별 맞춤형돌봄 특화도시 조성

아동돌봄센터 8개소 확대

【춘천】춘천시가 민선 8기 ‘일상의 돌봄이 함께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돌봄 특화도시’ 조성에 나선다.

이를 위해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여성, 법시민 등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한다.

육동한 시장은 1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춘천시는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공동체’를 목표로 시민 어느 누구도 복지외 돌봄 안전망에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지역 공동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내년까지 아동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8개소 운영 확대,

노인을 위한 노인통합돌봄사업(식생활, 주거, 의료, 동행 등)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한다. 또 장애인에 대한 춘천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건립과 도교육청 특수교육원 본원 건립을 연계 추진한다. 특히 북부권 공공도서관 건립과 특수교육 관련 시설 2곳을 도유지인 우두동 농업기술원 부지에 설립하기 위해 강원도, 도교육청 등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육동한 시장은 “춘천시의 복지예산은 올해 5,199억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가장 많은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민선 8기 춘천시는 필요한 복지예산은 꾸준히 늘리되 분명한 방향성을 갖고 모든 돌봄을 연결하겠다”고 설명했다. 장현정기자

江原日報

2023 04 12 ()
08

강원도 네 번째 규제자유특구 ‘태백’ 지정

산림 바이오매스 활용 수소 생산

강원도 내 산림에 방치된 목재를 통해 청정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규제자유특구가 신규 지정됐다. 이로써 강원도는 규제자유특구 전국 최다 보유 광역자치체가 됐다.

강원도와 중소벤처기업부 강원청에 따르면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0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에서 ‘강원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스 청정수소 생산·활용’ 규제자유특구 신규 지정이 의결됐다. 이번 특구 사업은 태백시에서 운영하는 철암발전소를 중심으로 미이용 산림 바이오매

스를 활용한 청정수소 생산 및 실증에 관한 규제를 해제하는 사업으로 태백시가 강원 청정수소 보급의 중추적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태백 청정수소 클러스터 육성사업에 올해부터 4년 동안 국비, 지방비, 민자 등 총 192억원이 투입되며 강원도는 국비 100억원 확보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강원도 내 규제자유특구는 네 곳으로 늘어났다. 김진태 강원도 지사는 “도는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해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동휘기자

2023 04 11 ()

MBC 강원영동

태백, 고랭지배추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선정

박은지

태백시 고랭지에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역점 추진하는 올해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돼 태백시 창죽동, 화전동 193ha에 고랭지배추 스마트농업 생산단지과 실증단지를 구축합니다.

전국 고랭지 배추 93%가 생산되는 강원도에서도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춘 태백시는 경사가 심한 지형에 자동화 설비가 어렵고 고령화로 인한 생산 효율 저하 등의 문제가 있어 스마트 농업 도입에 최적의 장소로 선정됐습니다.

태풍급 '양간지풍', 마른 대기 휩쓸며 화재 키워... 비가 살렸다

(양양~고성 사이 국지성 강풍)

'火風'으로 불리는 봄철 강원 서풍 2005년 양양 등 3, 4월 집중 피해 강릉 최근 강수량 평년 절반 그쳐 불 잘붙는 소나무숲 불쏘시개 돼

11일 강원 강릉 산불이 순식간에 대형 화재로 번진 데는 기상과 지형, 수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봄철 강원 지역에 부는 강한 바람이 나무를 쓰러뜨려 불씨를 제공했고, 헬기가 뜨는 것을 방해해 조기 진화를 어렵게 했다. 그사이 불길은 바람을 타고 바짝 마른 대기와 땅으로 번져 갔다. 여기에 화재에 취약한 소나무 숲이 불쏘시개가 됐다.

● 대형 화재 만든 '양간지풍'

이날 강원 영동 지역에는 초속 30m(시속 108km)가 넘는 강한 바람이 불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양양 설악산 초속 37.8m(시속 136km), 고성 현내면 30.6m(110km), 동해 30.1m(108km), 강릉 연곡면 28.7m(103km) 등의 강풍이 관측됐다. 풍속에 따라 태풍의 세기를 5단계로 나누는데 초속 33m 이상 44m 미만은 기차 탈선 등 피해가 발생하는 '강'(3단계) 태풍에 해당한다. 비록 순간적이지만 '강' 태풍급 바람이 분 셈이다.

이날 전국적으로 강풍이 불었어도 최대풍속은 초속 20m(시속 72km) 전후였다. 유독 강한 강원 영동 지역 바람은 한반도 상공의 '남고북저(南高北低)' 기압 분포에 따른 '양간지풍(襄杆之風)' 때문이었다.

봄이 되면 한반도 남쪽에 이동성 고기압이, 북쪽에 저기압이 발달하는 기압 분포가 자주 나타난

다. 이때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로 강한 서풍이 발생하는데, 이 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으면서 '편향상(바람이 산맥을 오르내리며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을 일으키고 풍속도 빨라진다. 이것이 양간지풍이다.

2005년 낙산사를 태운 양양 대형 산불, 2019년 4월 고성·속초 산불, 지난해 3월 울진·삼척 산불 등 강원 지역에선 봄철 '양간지풍'으로 인해 작은 불씨가 대규모 화재로 번지곤 했다. 이 때문에 예부터 양간지풍은 불을 부르는 바람이란 뜻의 '화풍(火風)'으로 불렸다.

● 강릉 2주간 강수량수 단 하루

실상가상으로 강릉과 고성, 동해 등은 건조경보가 내려질 정도로 대기가 바짝 마른 상태였다. 특히 강릉의 경우 최근 2주간 강수량수가 하루에 불과했고 강수량도 평년 대비 50.5%에 불과해 땅마저 건조했다.

불이 난 강릉 지역 산림에 소나무가 빽빽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소나무는 사사시칠 나뭇잎이 있는 침엽수이고, 휘발성 물질을 갖고 있어 불에 타기 쉬운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11일 오후 강릉 지역에 비가 내리면서 불이 잦아들었다. 만약 비가 내리지 않았다면 강풍 탓에 번지는 불길을 잡기 어려웠을 것이라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봄철 '남고북저'의 기압 분포가 계속될 수 있고, 대기도 건조해 대형 화재의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10일까지 발생한 올해 산불은 417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414건)보다 많다. 기상청은 "기후변화로 기온이 오르고 강수량이 줄면서 산불 위험도도 높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미지 기자 image@donga.com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 21

경포 대형산불 조속한 복구로

-이재민 손해 배상 및 다각 지원으로 재기 순조롭도록

강릉시 난곡동에서 어제(4월 11일) 발생한산불이 경포및사천권 일대 주택가와관광지로 번지며 삼시간에 막대한피해를 냈습니다. 초속 30m를 넘나드는 강풍을 타고 치솟은 불길로 피해 면적은 축구장 518개와 맞먹는 370ha로 추산됩니다. 가장 심각할 때는 화선이 8.8km에 달했을 뿐만 아니라 강풍방향에 따라 자칫 도심으로 불길이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이 일대 초등학교, 아파트, 상가 주민들이 대피하면서 큰 혼란을 빚었습니다.

발화 1시간여 만에 소방대응 3단계로 격상될 정도로 피해가 확산된 이유는 매년 봄철에 영동권을 휩쓸곤 하는 초강풍때문입니다. 헬기가 뜰 수 없을 정도로 강풍이 부는 탓에 공중을 비롯한 육상에서 진화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면서 피해 규모가 순식간에 불어난 것입니다. 바람이 잦아든 오후 2시 무렵부터 초대형 및 대형 헬기가 투입돼 주불진화에 나섰지만, 이미 뜨거운 불길은 시커먼 연기를 내뿜으며 경포 일대를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인명 피해가 있었고 재해지는 해안관광지여서 주택과 상가 등 개인 재산 손실이 컸습니다. 주택과 펜션리조트 등 숙박업 건물 70여채가 전부 내지일 부불에 타면서 생활 및 생업 기반을 망쳤습니다. 겨우 몸만 피한 이재민들은

당장 보금자리인 집과 생계 터전을 잃어버리고 고통속에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닥친 재난의 위기를 최대한 어루만지고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지원이 빠르게 강구되어야 합니다. 이재민의 어려움을 덜고 재기를 돕는 방안은 다각적이어야 합니다.

당장 생필품과 의료품 등 각종 물품과 서비스 제공에 누수가 없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재산 손실에 합당한 구제 조치가 이뤄져야 합니다. 대형산불이 발생할 때마다 주민은 막대한 피해를 보아도 구제책이 충분하지 않고 제때 이뤄지지 않아 원성을 샀습니다. 2019년 봄 고성 산불로 인한 손해 배상을 둘러싸고 이재민과 한국전력공사 측이 벌이는 법적 분쟁이 아직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일 한전 속초지사 앞에서 배상 촉구 집회가 열렸음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동해안권 봄철 대형산불은 주로가뭄과 강풍이 동반할 때 발생하긴 하나 철저한 원인 규명으로 재해 예방책이 나와야 합니다. 고성산불과 마찬가지로 이번 경포 대형산불의 발화 원인으로 전선 문제가 지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송진이 불쏘시개가 되는 산림문제 등 복구책 수립은 면밀해야 할 것입니다.

강원도민일보

2023 04 12 ()
/ 21

강원 의석수 감소 땀 ‘정치 공동화’

-국회 비례 확대·정수 축소 논의... 8석도 불투명

국회가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한 토론을 본격화한 가운데 지역 대표성 강화 방안은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역구 의원 감축을 통한 비례대표 의석 증원이 제시되면서 강원도가 직격탄을 맞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춘천 단독분구와 기형적 선거구 조정 등 당면 현안 해결 가능성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역구 감축이 이루어진다면 강원도 8석사수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사실상 지역 대표성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강원 지역구 의석 감소라는 최악의 결과를 막기 위해 도 정치권이 응집력을 발휘해야 할 때입니다.

제도 개편을 모색하는 국회 전원위원회 논의는 주로 비례성 강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00석 유지를 전제로 비례대표 의석을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을 감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인구를 기준으로 적용한다면 강원도는 의석 유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더불어 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현행 253석의 지역구 의석을 225석까지 감축하되, 비례대표 자리를 늘려 비수도권 지역에 배분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한 지역 대표성 약화 문제를 비례대표 의석 배분을 통해 보완할 수 있다

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비례대표가 지역을 대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음 선거 출마가 불투명한 비례의원들이 지역의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지는 의문이기 때문입니다.

전원위 안팎에선 총의원 정수 자체를 줄이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자신이 제안한 ‘의원정수 30명 감축’ 기조를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의원정수 축소가 당론은 아니면서도 “여야 합의가 되면 실현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정수가 감축되면 강원 국회의원 의석수 유지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이 8명뿐인 강원도로서는 ‘정치의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인구 중심의 선거구 획정으로 이미 대표성이 약화된 강원도는, 지역 공동화에 이어 정치 공동화의 길로 접어들지도 모릅니다. 지역 대표성을 외면하는 선거구 획정은 국회의 본질을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전원위원회는 13일까지 열립니다. 여야는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지역의 정치역량을 약화하지 않을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도 정치권도 결과만을 기다리는 소극적 인 자세에 머무르지 말고 역량과 의지를 모아야 합니다.

江原日報

2023 04 12 ()
/ 19

농어촌 ‘의료체계’ 공백, 의사정원 늘려야 해결

지방 공공병원의 공중보건의 인력 부족으로 농어촌 주민들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이고 있다. 공중보건의는 농어촌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마지막 보루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때 가까운 곳에서 긴급 처방을 받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다.

농어촌 주민들이 그 권리를 누릴 수 있게 한 버팀목은 다름 아닌 공중보건의가 존재했기에 가능했다. 그런 공중보건의들의 전역 여파로 농어촌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다. 강원도에 따르면 올해 정부로부터 배정받은 공중보건의 인원수는 101명으로, 지난달 26일 전역한 120명에 비해 19명이나 적다. 이는 도가 자체 수요 조사를 통해 필요할 것으로 예측한 인원 143명에 비해 42명이나 부족하다. 공중보건의 수는 2012년까지 300명대 중반 수준을 유지했으나 2019년 310명, 2020년 306명까지 줄어든 뒤 지난해부터는 200명대 후반 선에 머물고 있다. 이 때문에 농어촌 필수요를 담당하는 의료기관들은 응급실 운영 유지조차 불투명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여기에다 의사들이 수도권 병원에 비해 생활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방 의료원을 외면하는 현상이 고착화되다 보니 의사 한 명이 두세 사람 몫을 떠맡게 되고, 있던 의사마저 오래

버티지 못하고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이제는 개별 의료원이 연봉을 4억원 넘게 올려줘도 의사를 못 구하는 실정이다. 근본적으로 의사 수를 늘리지 않고 의사 수급난을 해소할 길이 없다. 하루빨리 의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 늘어난 정원으로 의사가 부족한 지방과 의료취약지에서 일할 의사를 배출해야 한다.

전체 의대 정원의 3분의 2 이상을 해당 지역 출신으로 뽑도록 하고, 매년 일정 인원은 졸업 뒤 의료취약지에서 일하도록 해야 한다. 지방대 의대 신입생 10명 중 4명이 수도권 출신인 선발 방식으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해 봤자 지방 의사 부족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고 의사 수급 불균형과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나쁜 의료제도를 손봐야 한다. 기피 과목처럼 실제 일하는 의사는 부족하지 않은데 배출된 전문의가 엉뚱한 곳에 가서 근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자 수요에 맞게 응급센터, 심장병센터, 분만센터를 지정해 부족한 의사가 여러 병원으로 분산되지 않도록 하는 게 우선이다. 병원 진료 기능을 분화시켜 수요 대비 약 2배 수준인 공급 과잉을 해소하면 전문의를 2배 늘리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또한 환자 수에 비례한 전문의 수 법적 기준을 마련해 병원이 기피 과목 전문의를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

江原日報

2023 04 12 () / 19

강릉 산불, 응급지원·피해복구 신속하게 이뤄져야

대형 산불 공포가 강릉시를 뒤덮었다. 11일 난곡동 인근 산에서 발생한 불이 태풍급 강풍을 타고 동시다발적으로 동해안 방향으로 번지면서 피해를 키웠다. 이날 소방 당국과 산림 당국은 울 들어 처음으로 대응 수준을 최고 단계인 3단계로 격상하고 인력·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총력 대응에 나섰다. 하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았다. 봄철이라 나무의 수분량이 적은 데다 강수량마저 부족하면서 산림이 메말라 산불에 매우 취약해진 탓이 컸다. 특히 강릉에 최대순간풍속 초속 30여m의 강한 바람이 불면서 비화현상으로 불은 빠르게 확산됐다. 반면 강한 바람 탓에 소방헬기를 띄우지 못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불은 산림뿐 아니라 민가와 펜션, 상가, 창고 등을 태웠다. 또한 학교는 휴업이나 단축 수업을 하고 인근 도로는 통제됐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수백명이 긴급 대피하며 불안에 떨었다. 기상청이 전날 강릉, 동해, 삼척, 속초, 고성, 양양에 내리진 건조주의보를 건조경보로 격상한 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건조경보는 화재 발생 위험도를 표시하는 '실효습도'가 25% 이하인 상태로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효된다. 매년 이맘때는 대기가 건조해진 탓에 산불 위험이 가장 높다. 동해안 지역에는 현재 건조경보와 강풍경보가 내려져 있다. '제2의 강릉 산불'이 언제라도 재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있는 것이다. 산불과 화재에

대한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 더는 단 한 건의 산불도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하겠다.

앞으로 정부와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선 임시시설에 분산 거주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불편 최소화과 일상 복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재난지역에 대한 인력·장비·물자 동원을 비롯, 위험구역 설정·대피 명령·응급 지원에 적극 나서야 한다. 정확한 피해 규모 파악과 신속한 보상도 필요하다. 2019년 산불로 고성 지역에서는 506세대 1,19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재산 피해만 610억여원에 달했다. 임시조립주택 240세대 275동을 지원받았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 26세대는 임시조립주택을 떠나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일

난곡동 아산서 발생, 강풍 타고 피해 키워
동해안 시·군 대형 산불 재발 여건 조성
소방 당국·지자체 비상대비체제에 철저를

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루라도 빨리 피해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강릉 산불로 다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산림청과 소방서, 지자체까지 유기적으로 협력해 산불 비상대비 체제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산불은 한번 나면 그 피해를 가늠할 수 없다. 산림자원뿐만 아니라 소중한 인명과 재산도 일순간에 잃을 수 있다. 해마다 크고 작은 산불에 따른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물론 산림청과 소방 당국, 지자체 등에서는 산불 예방에 총력을 쏟고 있다. 하지만 언제 어디에서 불이 날지는 알 수 없다. 아무리 예방 활동을 벌인다고 해도 우리 모두가 경계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면 화재는 막을 수 없다.